

가사노동으로 인한 습진·요통·류머티즘...

‘주부 직업병’ 인정해야 한다

가정의학 전문의·여성단체등 주장 눈길

최근 가정의학 전문의, 여성단체, 주부들 사이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습진·팔꿈치 근육통증·요통·류머티즘 등을 직업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매일같이 설거지·청소·빨래 등 물일을 하고, 앉았다 일어서는 단순 동작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은 ‘주부의 직업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부한테 직업병이?”하고 반문할 ‘주부의 직업병을 인정하자’는 의견은 주부의 집안일이 아직 ‘노동’이나 ‘직업’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하지만 주부들 사이에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3년전부터 오른손 둘째, 셋째 손가락과 손바닥에 습진이 생겨 고생하는 민영숙(33·서울 은평구 갈현동 92)씨는 “처음엔 습진 부위가 적었는데 날이 갈수록 더 번지고, 물이 닿으면 습진 부위가 갈라져 피가 나고 허물이 벗겨져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습진은 주부 10명 가운데 7~8명꼴

로 발생, ‘주부습진’이라는 이름이 붙은지 오래다.

습진 말고도 화분이나 장독을 들어 옮긴 뒤로 요통이 생겼다는 주부, 집안일하면서 앉고 일어서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사이에 류머티즘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주부들도 수두룩하다.

결혼초 빨래를 잘 때마다 팔꿈치에 느껴지던 통증이 이젠 행주를 잘 때도 극심하다는 이희주(38·서울 관악구 신림동 65)씨는 “집안일 때문에 생기는 이런 증세는 직업병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가정의학 전문의 서홍관(서울인제대 백병원)씨는 “주부의 집안일을 직업으로 본다면 직업



노동·직업 평가 못받으나 큰 공감대 형성 습진80%, ‘테니스 엘보’ 운동선수의 12배

상 날마다 해야 하는 빨래·청소·설거지 때문에 나타나는 병은 직업병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동

의한다. 실제로 국립의료원 정형외과 조덕연 과장이 85년부터 4년 동

안 병원에 찾아온 ‘테니스 엘보’ 환자 1백97명을 분석한 결과, 주부가 1백32명으로 67%나 차지했

다. 이는 운동선수 5.6%보다 무려 12배나 높은 수치다.

서홍관씨는 “팔관절과 손목에 무리한 힘이 주어졌을 때 팔꿈치 관절 주위의 근육에 통증이 나타나는 ‘테니스 엘보’ 증세가 운동선수보다 주부에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만큼 이름을 ‘주부관절’로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조덕연씨는 대한정형학회지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주부들 사이에 직업병으로 번지고 있는 테니스 엘보를 방지하려면 스quel나 행주, 빨래를 잘 때 손목이 손등 방향으로 꺾이도록 힘을 주지 말고 손목이 안쪽으로 굽어지는 자세로 짜고 스quel질할 때, 걸레를 쥐지 않은 손에 몸무게를 실어 방바닥을 닦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정의학 전문의들은 물일을 할 때 되도록 고무장갑을 사용하되, 안쪽에 면장갑을 꼭 끼도록 당부한다.

또한 요통과 류머티즘이 있는 주부들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반드시 무릎을 구부려 무릎의 힘을 이용하고, 오래 서서 일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집안일하고 틈이 날 때마다 뒤통 일으키기, 엉덩이뼈 들어올리기, 무릎구부러 가슴대기, 무릎펴고 앉아 허리굽히기, 쪼그려 앉고 일어서기 운동 등을 계속하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한다.

한편 한국여성민우회는 ‘주부의 직업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회보 <함께 가는 여성> 7월호에 ‘주부가 갖는 직업병’을 싣고, 다음달부터 주부의 가사노동에서 오는 병의 실태를 연재할 계획이다.

〈신연숙 기자〉